

금주의 칼럼

효과적인 의사소통(2)

의사소통은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진심이 오가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2. 경청의 태도와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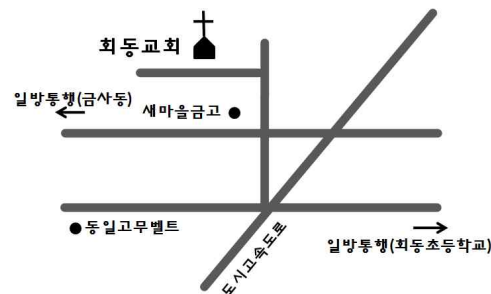
나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편인가요?
나는 들으면서도 내 대답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듣기보다 판단이 앞서는 때가 있나요?
경청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상대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나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 눈빛, 몸짓에도 집중하고 있나요?
상대의 감정까지 듣기 위해 노력하나요?
나는 경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나는 사람의 말도 성실히 듣고 있나요?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

- 타지키스탄 (최**-서** 선교부)
- 국제기아대책(동래지역-선교부)
- 캄보디아 (최** 살롬회)
- 교경협의회(금정경찰서, 선교부)
- 총신대학교 (박성규. 선교부)
- 네팔선교(차**-2남전도회)
- 부루키나파소(김** 3여전도회)
- 한국대학생 선교회(박**지-4여전도)
- 인도네시아(배** 2여전도회)
- 인도네시아(조** 1남전도회)
- 동부산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선교부, 본회계)
- 삼척소명교회(고진용, 권사회)
- 부산신학교(교단신학교, 기도후원)
-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금정지역)

교회 집회 안내

예 배 시 간	집 회 시 간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삼 일 기도 회 오후 7: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유 * 초 등 부 주일 9:00
삼 일 예 배 오후 7:30	중 고 등 부 주일 9:00
새 벽 기도 회 매일 5:30	청 년 부 주일 12:45



대한예수교장로회 회동교회

주일예배

오전 11: 00 / 인도 : 배영조 목사

입 레	입례송 / 기원
표 어 제 창	" 내가 기도하노라 " (빌 1:9)
찬 송	5장
교 독 문	12문 (시편 19편)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335장
기 도	강병욱 장로
성 경 교 독	요한복음 2:1-11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씀	나중이 더 좋아야
찬송*봉헌	421장 / 봉헌
봉 헌 기도	인도자
광고*교제	교회소식 / 성도의 교제
찬 송	46장 (1절)
축 도	인도자

○ 표시는 일어섭니다

2026. 3 . 22 / 제 48-12

2026 비전 :

" 내가 기도하노라 " (빌1:9)

since 1979.

찬양예배 오후2시

인도:배영조목사

작은십자가 찬양

[1:45-2:05]

입 레: 인도자

찬 송: 327장 / 405장

기 도: 이순점권사 (다음: 이은심 권사)

성 경: 시편 62: 6-12

특 송: 1구역 (다음: 2구역)

말 씀: 나의 소망(2)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말씀 : 신명기 강해 / 인도: 배영조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

말씀: 누가복음 강해 / 인도: 배영조목사

[토 ~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 1층 교육관

■ 본회계 부산은행 073-01-033878-7 회동교회

■ 선교 부산은행 112-2335-8311-00 최은경

■ 건축 새마을금고 9002-1699-9318-3 회동교회

3 월 봉사 안내

차 량	(오전) 김수안 오세영 / (오후) 김수안(온천) 박영수(재송)
안 내 / 식 당	이봉순 / (주방) 이순점 이은심 / (청소) 강형순
중 식 봉 사	1주(1일) 2주(8일) 3주(15일) 4주(22일) 5주(29일)
기 도	3,4구역 5,6구역 7,8 구역 9,10구역 1,2구역
주 일 예 배	강병욱 최진수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주 일 오후	오세영 이성희 신광수 이순점 이은심
삼 일 밤	합심기도

● 담임목사: 배 영 조

● 장 로: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 선교사: 최강주 서현아

● 전도사: 허춘성 박옥주

● 지 휘: 김태호

● 반 주: 김정숙 부: 최문호

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회동동) Tel. 522-8771, 522-3708(목사관) Fax. 525-7191

홈페이지: <http://hoedongch.org/index.html> [네이버에서 "회동교회"]

교회 소식

-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1 대심방: 이번주부터 대심방이 있습니다. 구역마다 기도제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구역장: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 모임을 갖습니다.
- 3 구역모임: 3월부터 구역모임 열심히 모입니다.
- 4 전도: 3월 부터 전도팀 전도 나갑니다. 각 개인들도 어디서든 전도에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특송: 오늘부터 오후 예배 특송이 시작됩니다. 1구역부터 시작
- 6 가정사역: 생명의 양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람
- 7 행사안내: 1) 대심방: 다음 주 심방예고 5,6,7구역(화,목,금)
2) 구역장 모임: 다음 주일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3) 고난주간: 3월 30일부터 한 주간
4) 부활주일: 4월 첫째 주일

이번주 대심방 일정

- # 대심방: 3월 24(화)일 부터 봄 대심방 실시 합니다. 구역별 연합대심방
각 구역내 구역원들은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방대원: 담당권사, 교구전도사, 담임목사
1구역: 24일, 화요일, 심방대원- 이은심
2구역: 25일, 수요일, 심방대원- 이순점
3구역: 26일, 목요일, 심방대원- 김경애
4구역: 27일, 금요일, 심방대원- 최은경

3 월 행사 안내

* 삼일절: 3월 1일	* 월례회: 각 전도회 월례회 3월 15일
* 교회창립 기념주일: 3월8일	* 전도팀 전도: 3월 11일부터 시작
* 제직회: 3월 첫째주	* 대심방: 3월24일부터 실시(연합대심방)
* 기관별대회: 찬양,울동/ 3월8일 4여전도회주관	* 총회사모세미나: 3월 16-18일
* 동래시찰회: 3월 4일, 내성교회당	* 고난주간: 3월 30일부터
* 경배와 찬양: 3월 15일	* 권사기도회: 매달 넷째 주 화요일
* 구역모임시작: 3월부터	* 새가족부 : 세미나실, 점심 후 성경공부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 강병옥*박옥주 최문성*장지원 최진수*김미연 강형순
- ◆**감 사:** 강병옥*박옥주 김승하 김종섭*장은미 김태호 주경찬 무명
- ◆**선 교:** 4여전도회(6) 3여전도회 배영조*김옥단 강병옥*박옥주 김세울*백순귀 김영숙 강형순 최춘은 권사회
- ◆**건 축:** 강병옥*박옥주 김세울*백순귀 배영조*김옥단 김영숙 강형순

양육,친교 모임

프로그램	모임시간	모임장소
새가족부	주일 오전 12:40	1층 세미나실
구역장모임	주일 (매달 마지막주)	3층 교육관
돌봄교실	주일 오후예배시간	교육관/ 별관
기초교리반	상 . 하반기(문답교육)	1층 세미나실
성경강해	마태, 시편, 신명기	본당
친교(탁구부)	주일/ 오후예배후	별관

구역 모임 보고

3월 모임

구역	구역장	모인수	전도	헌금	성경	모인곳
1교구						
1	이순점	3		10,000	953	박영수
2	강형순				2330	
3	이은심	4		17000	2200	교 회
4	백운자				3635	
5	김경애				1850	
2교구						
6	이봉순				838	
7	박광자	10		10000	1570	각가정
8	이현정				3751	
9	전만주				2455	
10	김종섭				520	

생명의 양식

03-4 훈계의 원리 (2) 잠언 29장 17절

2. 훈계할 때 채찍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계할 때 아이에게는 꼭 채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찍을 사용할 때 분노함으로 사용해서는 역효과입니다.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분풀이로 채찍을 사용하고서는 그것을 훈계라고 생각해서는 정말 안됩니다.
일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한 짜증과 스트레스가 섞인 채찍이나 정당하지 못한 언어의 채찍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훈계의 목적은 아이를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훈계를 남용하면 아이를 죽이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문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훈계 문제에 있어서도 좌로나(매를 대지 않는 것) 우로나(매를 남용하는 것)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

자식이 거둬 잘못을 범했을 때에라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부모!

그는 어떤 영웅보다도 훌륭한 영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있어 가치 있는 목표를 성취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인내할 줄 아는 바탕에서 비롯됩니다.
그와 같이 인내의 바탕에서 채찍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이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